나고야방적 - 방적부문의 합리화로 수익 개선

일본의 나고야(名古屋)시에 있는 나고야방적은 2002년 9월기 결산에서 수입은 10%정도 감소하였으나 수익(收益)은 방적부문의 합리화가 잘 추진되어 개선되었다. 앞으로는 봉제품을 소로트단납기(小 lot 短納期)체제로 수주 생산하는 업무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나고야방적은 기후(岐阜)현에 있는 호즈미(穗積)공장에 링정방기 5만추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적시설 외에 편성기 38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그 동안 감소된 종업원을 보충하지 않음으로써 종업원수를 줄였으며, 공장의 조업을 3교대제에서 2교대제로 바꾸는 등 공장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하여 왔다.

현재 판매 실적은 방적사가 35%, 편성지가 45%, 나머지 20%는 봉제품의 위탁생산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방적사 판매는 방적부문의 합리화조치로 앞으로는 더 이상 수입 감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편성지 판매는 중소기업 제품이나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수입품에 밀려 격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격감을 봉제품의 위탁생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나고야방적에서 봉제품의 위탁업무는 유행에 민감한 젊은 여성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주로 일본 내에서 봉제함으로써 가장 신속하고 좋은 품질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소 300매 정도의 소량주문부터 받고 있으며, 빠르면 2주일,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납품할 수 있는 것을 자랑으로 하고 있다.